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에베소서 6:21-24

에베소서를 전체 네 주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앉아 있으라! - 교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잘 살아라! -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싸우라! - 원수 마귀가 있으니 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은 “잘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이 사랑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부터의 사랑이요,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서로 사랑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는 사랑을 받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엡 6:21)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차례 나옵니다.(행20, 골4, 딤후4, 딤텔3) 그중에 사도행전 20장 4,5절을 보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었는데 유대 사람 바울, 베뢰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디베 사람들과 함께 복음이라는 이름, 십자가라는 그늘 아래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고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난 선교바자회에서도 우리는 다민족적인 동역과 사랑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요 13:34-35)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 두기고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받고 사랑하는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 소통의 사람, 마음에 닿는 위로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함과 소통과 위로, 이것이 사랑의 얼굴들이며 모습입니다.(엡 6:21b-22)

2.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부터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엡 6:23)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서로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사랑의 출발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모든 사랑의 출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요일 4:8b-10)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점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하셨나이다” 나의 사랑스러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나는 사랑스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란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삽니다 — 소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됩니다. 소유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을 잠재울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은 비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보다 덜 가졌다고 멸시하지

않으며, 더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위축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존전 앞에 나아가고, 얼마든지 부르짖어 그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

질문이 있습니다 - 여러분의 main job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main job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엡 6:24)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변함없이”는 “아프타르시안”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영광, 존귀라는 단어와 같은 수준의 단어이며 영생과 관련된 엄중한 단어입니다. 영생이란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롬 2:6-7) 또한, 이 단어는 생명과 같은 수준의 단어이며 복음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복음은 사망이 다시없고 결코 썩지 아니할 생명에 대한 소식입니다.(딤후 1:10)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변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ISIS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고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였을 때, 몇몇 어른들은 갈등하며 부끄럽게 신앙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며 다 참수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사랑이 깊어질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그 사랑은 변질 되고 퇴색 됩니다.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칭찬했지만, 첫사랑이 없다고 하시며 책망하십니다.(계 2:4) 오래 될수록 익숙하게 일은 하지만, 사랑은 변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첫사랑의 뜨거움은 평균 18개월이라고 합니다. 후에는 권태기가 와서 다른 존재를 더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롯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죽을 때 까지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의 대상과 실체가 바로 나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께 감동을 주고 놀래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처음에는 미지근했으나 후에는 무엇에도 변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고귀한 사랑이 되었습니다.(아 8:5a,6b,7)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변덕스럽고, 조그만 풍랑에 멈추는 것, 어렵다가 잘 되면 나아오지 않는 것,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고전 16:22)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엡 6:24)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 나눔의 시간 ○

1. 오늘 본문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세 가지 사랑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2. 사랑의 사람 두기고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3.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4. 우리의 main job은 무엇인가요?
5.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 첫 번째로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